

【 국내금융 뉴스 】

풍수해보험 가입자, 20만 가구 돌파

□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수가 9개월만에 2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 풍수해보험은 방재청이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하고자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권자는 94%)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파괴됐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재난관리제도임.

□ 풍수해보험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기간이 짧고 예년에 비해 풍수해 피해가 적어 11월과 같은 비수기에는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최근 동절기에 대비한 집중홍보 등으로 주당 2만 건 이상씩 가입하는 추세를 보임.

○ 최근 주별 보험가입 추이는 총 가입자 수가 182,290가구(12월 3일 기준)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주택이 181,373가구, 온실 756가구, 축사 161가구 순으로 나타남.

○ 이는 11월 중순 대비(2주차 가입자 수는 117,540가구)로 55.1%의 가파른 가입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풍수해보험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발생한 개인 또는 기업의 경제적 손실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 수행해 오고 있으며, 부동산권리보험, 법률비용보험 등과 같이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성 상품의 일환으로 개발·판매되고 있음.

○ 이처럼 여러 경제 분야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성보험의 적극적인 영업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 9개월 만에 20만 가구 가입-소방방재청 재해보험과, 12/10)